

先祖들의 思想과 處世訓

成 百 曉

〈傳統文化硏究會·漢學者〉

그동안 중국의 고전인 사서(四書), 삼경(三經)을 위주로 좋은 내용들을 뽑고 이를 시사(時事)와 연관시켜 소개하였다. 고전은 언제나 인간의 심신(心身)을 풍요롭게 하는 자료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동양고전은 오늘날처럼 인심이 메말라져 가는 세상에 한 줄기 소낙비와 같은 청량제(淸涼劑)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철학이 될 만한 선조들의 사상과 지혜, 생활태도와 처세훈 등을 각종 자료에서 발췌하여 소개하려 한다.

교우(交友) 관계

1. 친구를 대신하여 출전한 윤섬(尹暹)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이일(李鎰)은 순변사(巡邊使)가 되어 왜적을 막기 위해 영남(嶺南) 지방으로 출정하였는데, 당시 교리(校理)로 있던 윤섬(尹暹)의 친구를 그의 종사관(從事官: 보좌관)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윤섬은 이일을 찾아가서 친구의 딱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순변사께서 종사관으로 임명한 그 사람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노모를 봉양할 자식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전지(戰地)로 떠나가면 노모의 처지가 매우 딱하게 됩니다. 순변사께서는 이들 모자의 딱한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국가의 흥망이 달려 있는 출전이니, 보좌관을

잘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대가 그를 대신하여 나의 종사관이 되어 달라.”

그리하여, 윤섬은 친구 대신 이일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게 되었다. 그가 모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니, 아우 윤적(尹適)이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만류하였다.

“형님은 어찌하여 친구의 사정만 가엾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까? 형님이 떠나면 우리 부모는 누가 모신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형제가 없으나, 우리집은 내가 있지 않느냐? 국가가 위급할 때에는 집안 사정을 사사로이 돌아보아서는 안된다.”

윤섬은 그의 동생에게 집안 일을 맡기고, 이일을 따라 상주(尙州)로 출전하였다. 이일 군(軍)은 상주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였다. 이일은 패주하면서 윤섬에게,

“우리가 여기서 부질없이 죽는 것은 국가에 이로운이 되지 않는다. 잠시 왜적을 피하여 뒷날을 기약하기로 하자.”

하고, 함께 도망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윤섬은, “죽어서 나라에 보답할 뿐입니다.”

하고는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청야만집(靑野漫輯)〉

2. 친구를 질책하여 깨우쳐준 조언형(曹彦亨)

조언형(曹彦亨)은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부

친이다. 그는 천성이 악을 미워하여 남의 잘못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였다. 그는 중종(中宗)때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강혼(姜渾)과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강혼은 군주의 비위를 잘 맞추어 총애를 받았다. 이것을 안 조언형은 강혼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조언형이 단천군수(端川郡守)로 부임하였는데, 강혼이 왕명으로 각 지방을 순시한다는 통보가 왔다. 이 통보를 받은 조언형은 관직을 사퇴할 준비를 하고는 탁주 한 통을 마련하게 하였다.

얼마 후 강혼이 그를 찾아왔다. 조언형은 병을 핑계로 강혼을 만나지 않고 돌려 보낸 다음, 밤중에 하인에게 술통을 돌려 강혼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강혼이 왔는데, 어디 있는가?”

방에서 조언형의 목소리를 들은 강혼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반겼다.

“오, 자네타? 나 여기 있네!”

방으로 들어간 조언형은 강혼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말을 꺼냈다.

“날씨가 추운데 술이나 한 잔 하세”

강혼은 즉시 하인이 메고 온 술통을 방에 들여 놓고, 먼저 큰 잔으로 안주도 먹지 않은 채 몇 잔을 거둬 마셨다. 강혼도 손수 술통의 술을 떠서 연거푸 세 잔을 마셨다. 술이 얼큰해지자, 조언형은 강혼에게 이렇게 꾸짖었다.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자네를 친구로 사귀어 왔지만 자네가 그 따위 못된 짓을 할 줄은 몰랐네. 내가 자네에게 편지를 보내어 절교하려 하였으나, 자네를 만나서 얘기해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참아왔던 터이네. 이제 자네를 만나 내 심중을 털어놓았으니, 나는 벼슬을 그만두고 이 곳을 떠나겠네. 자네와는 절교를 하네. 자네는 지금까지 개·돼지만도 못한 짓을 하였으니, 자네가 먹다 남긴 저 술은 사람으로서 먹을 술이 아니네. 남은 술은 자네가 다 마시게.”

조언형은 술통에 남은 술을 강혼으로 하여금 다 마시게 하고는 그 다음날 단천을 떠나고 말았다. 조언형으로부터 절교를 당한 강혼은 후일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中宗反正)의 공신(功臣)이 되었다.

(대동기문(大東奇聞))

3. 친구의 재능을 알고 해임하게 한 조사

수(趙士秀)

선조(宣祖) 때의 문신(文臣)인 홍담(洪曇)이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자, 대사헌(大司憲) 조사수(趙士秀)가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담은 나의 친구이다. 그러나 그의 재질은 이 조판서(吏曹判書)가 되기에는 충분하나 병조판서에는 합당하지 못하니, 이번 인사(人事)를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조사수는 홍담의 직책을 바꾸도록 왕에게 상주(上奏)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홍담을 찾아가 그의 소신을 털어놓았다.

“내가 자네의 직책을 바꾸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홍담은 스스로없이 조사수의 말을 받아들였다.

“실은 나도 병조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라 속으로 걱정하고 있던 참이네. 자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직책을 바꾸도록 대간들로 하여금 상주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네.”

(부계기문(滄溪紀聞))

4.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 최숙생(崔淑生)

최숙생(崔淑生)은 중종(中宗) 때의 문신으로 성품이 강직하였다. 당시 학문이 높은 이세정(李世楨)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과거를 여러 차례 보았지만 그 때마다 낙방을 하였다. 그에게 배운 제자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였으나, 이세정은 늙도록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세정을 보다 못한 이세정의 제자들이 그를 추천하여 청양현감(靑陽縣監)이 되게 하였다. 이 때 조정에 있던 이세정의 제자로는 이장곤(李長坤)·성몽정(成夢井)·김세필(金世弼)·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등 쟁쟁한 인물이 수없이 많았다.

이세정은 그 자신이 청렴하고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백성을 다스릴 줄을 몰랐다. 이 때문에 선생을 청양현감으로 보내놓은 이세정의 제자들은 늘 선생의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강직하기로 이름난 최숙생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세정의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세정이 무사할 것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숙생이 임지로 떠나는 날, 남대문 밖까지 나가서 전송을 하면서 최숙생에게 부탁을 하였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청양현감으로 나가 계시니 잘 부탁하오. 그 분은 학문이 깊고 청렴한 분이니, 백성을 다스림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잘 보아 주시오.”

최숙생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임지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최숙생은 청양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세정을 파직시켰다. 그후 최숙생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이세정의 제자들이 모여 최숙생에게 따지고 물었다.

“호서(湖西 : 충청) 지방에 우리 선생님보다 더 교활한 수령들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만 파직시켰소? 우리 선생님을 파직시킨 것은 공(公)이 우리 선생님에게 대해서 조사를 잘못 한 때문이 아니오?”

이에 최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다른 고을 수령들은 비록 교활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적이었오.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어 낼 수 있었오. 그러나 청양현감은 비록 자신은 청렴하였지만, 그 고을에 도착때가 들끓는 데도 그것을 처치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도적의 피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소. 또 뱃속이 텅 빈 사람이 어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오?”

이 말에 이세정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인 김정국이 버럭 화를 내었다.

“우리 선생님 뱃속에는 사서(四書)·삼경(三經)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선생님의 뱃속이 비었다고 말하는게요?”

최숙생은 지지 않고 이렇게 대꾸하였다.

“그렇지 않소이다. 공들께서는 그분의 뱃속에 들어있던 사서·삼경을 모두 꺼내어 나누어 가지고, 그것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 있지 않소? 그러니 그분의 배가 아무리 크단들 그 뱃속이 비지 않고 어찌겠오?”

〈대동기문〉

5. 공사(公私) 구분을 엄격히 한 이무방(李茂芳)과 임담(林潭)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에 순창군수(淳昌郡守)와 계림부윤(鷄林府尹) 등을 지낸 이무방(李茂芳)은 여러 고을을 다스려 공적이 많아 관직이 검교문

하시중(檢校門下侍中)에 이르렀다.

그가 순창군수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이 지방 토산물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차고 있던 붓집과 소지품을 아전에게 내어 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의 사사로운 부탁을 공물(貢物)로 마련해 줄 수는 없으니, 이것으로 그가 요구하는 물건을 사다가 주어라.”

이것을 본 그의 친구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동사강목(東史綱目)〉

효종(孝宗) 때의 문신인 심지원(沈之源)이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있었는데, 임담(林潭)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순행(巡行)차 홍주에 도착하였다. 심지원은 관찰사와 평소애 잘 아는 사이라 하여 허물없이 대접하였다. 그러자, 임담은 아전을 불러,

“네 상관이나와는 교분이 친밀하지만, 상하관(上下官)의 질서는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네 상관의 공무(公務)로 순행중인 나를 사적(私的)으로 대접하였으니, 네가 대신 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그 아전에게 태형(笞刑)을 가한 다음 홍주를 떠났다.

심지원은 그후 항상 자제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때 관찰사가 나를 깨우쳐 주었느니라.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사(公私)의 구분이 분명해야 하는 데에도 당시 나는 그렇지 못했었다. 관찰사의 그러한 깨우침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항상 공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라.”

〈목민심서(牧民心書)〉

6. 인재를 발굴한 이창운(李昌運)

정조(正祖) 때의 무관(武官)인 이창운(李昌運)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 무과(武科)에 합격한 뒤에 삭주부사(朔州府使),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등을 역임하고 지훈원사(知訓鍊院事)에 이르렀는데, 언제나 ‘용맹한 군사를 양성하는 것만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길’이라 역설하며, 강군(強軍) 육성에 애를 쓴 인물이었다.

그가 도총관으로 있을 때였다. 그가 평소 눈여겨 보아 오고 있던 김재찬(金載贊)이라는 청년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보직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를 자기 종사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김재찬은 문과에 급제한 자인만큼 무장의 종사관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창운은 김재찬을 여러 번 불렀으나, 김재찬은 그 부름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김재찬은 원래 성격이 오만할 뿐 아니라, 당시 조정의 고위직에 있었던 김익(金熲)의 아들이었으므로, 무관인 이창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창운은 김재찬이 여러 번 불려도 오지 않자, 마침내 오위도총관의 직권으로 김재찬을 잡아들였다. 오위도총부에 구금된 뒤에야 김재찬은 비로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친(金熲)에게 구명(救命)을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이렇게 거절하였다.

“네가 군령(軍令)을 어겼으니, 법대로 처분 받아야지 별 수 없다.”

김재찬은 거듭 애원하자, 김익은 할 수 없이 편지 한 통을 이창운에게 보내었다. 이창운이 김익의 편지를 받아 보니,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였다. 김익의 편지는 아들의 처사가 군율을 어긴 만큼 그를 살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죽여 달라고 할 수도 없었으므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창운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네 죄는 죽어 마땅하나, 네 부친의 얼굴을 보아 살려 주는 것이니, 이후로는 내 명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엄히 꾸짖은 다음 하옥(下獄)시켰다.

그 날 밤부터 이창운은 밤마다 옥으로 김재찬을 찾아가서, 평안도내(平安道內) 각 고을의 풍속과 산천(山川)·도로(道路) 등의 지형을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김재찬은 40여일 동안 옥에 가두어 두고 평안도 내 40여 고을의 지리·풍속을 익히게 하니, 김재찬은 마침내 평안도 지방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게 되었다.

그제서야 이창운은 김재찬을 석방시키고는 그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이 늙은이가 자네를 미워해서 고생을 시킨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게. 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므로 후일 자네에게 중책을 맡기고자 자네를 불렀던 것이네. 우리 나라는 2백년 동안 태평을 누려왔으므로, 나라에 변란이 생기면 그 누구도 감당할 인물이 없네.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장차 나라의 위기(危機)를 자네가 구(救)하도록 하게.”

김재찬은 이창운의 참뜻을 알고는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빌고 이창운의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다. 그후, 순조(純祖) 11년(1811)에 평안도에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 평안도 일원이 난군(亂軍)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김재찬은 홍경래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대동기문)

7. 동종(同宗)의 고관을 만나지 않은 이순신(李舜臣)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였으나 오래도록 벼슬길에 나가려는 뜻을 품지 않아 윗사람을 찾아보는 일이 없었다. 울곡(栗谷) 이이(李珣)가 당시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었는데, 이순신의 사람됨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다. 울곡은 이순신이 자기와 같은 덕수이씨(德水李氏)이기도 하므로,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만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울곡의 청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거절하였다.

“종씨(宗氏)로서는 그 분을 만나볼 수 있으나, 그 분이 현재 이조판서의 자리에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택당집(澤堂集))

8. 정적간(政敵間)에 국사를 의논한 유척기(兪拓基)와 이종성(李宗城)

영조(英祖) 때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이종성(李宗城)은 선조(宣祖) 때의 명신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고손(高孫)이었다.

당시에는 노론(老論)·소론(少論) 간의 당쟁이 심화되어, 비록 한 조정의 동료라 하더라도 소속한 당이 다르면 상호간에 무조건 반목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장단(長湍)의 오촌(梧村)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 있을 때였다.

어느날,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마당을 깨끗이 쓸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일렀다. 그의 아들이

“오늘 어떤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유척기(兪拓基) 대감이 찾아오실 듯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들은 깜짝 놀랐다.

유척기는 당시 조정에 명망이 높은 대신이었다. 그러나 이종성과는 당파가 달랐으므로, 서로 원수 지간이나 다툼이 없는 사이였다. 그의 아들은 의아해서 다시 물었다.

“그 분은 아버님과 서로 반목하는 사이이온데, 어찌 우리집을 찾아오신단 말씀입니까?”

이종성은 아들의 물음에,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감정 따위를 개입시켜서는 안되는니라.”

하였을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후 과연 유척기가 이종성의 집을 찾아왔다.

유척기는 이때 청(淸)나라의 사신으로 가던 길이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이 자기들의 체도를 따르지 않고 아직도 명나라를 잊지 못하여 그대로 섬기고 있다며, 트집을 잡아 조선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그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유척기를 변무사(辯經使)로 청나라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청나라에 가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던 유척기는 청나라로 가는 길에 근처에 있는 이종성을 찾아, 그의 지혜를 빌려고 한 것이었다.

이종성은 찾아온 손님과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대청마루 한 가운데 병풍을 치고 앉아 유척기를 맞아들였다. 이종성이 병풍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공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내가 지금 변무사가 되어 청나라로 가는 길인데, 청나라에 가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공의 가르침을 받고자 왔소이다.”

유척기가 대답하자, 이종성은 한 동안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본래 제삿밥을 좋아하니, 내 이웃의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리다. 이웃에 개가(改嫁)해 온 한 여인이 있는데, 때만 되면 전 남편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는 것이오. 그것을 안 지금의 남편이 화를 내며 그녀를 꾸짖을 밖에도. 그러자 그녀가 ‘만일 당신도 불행하게 세상을 뜨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또 개가를 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당신의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또다시 내가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의 남편이 지금 당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오. 남편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자기 아내에게 전 남편의 제사를 잘 지내게 하고, 나에

게 그 제삿밥을 가져와 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었소. 나는 그녀를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소.”

유척기는 그 말을 듣고는 빙그레 웃고 물러갔다.

청나라로 간 유척기는 이종성으로부터 들은 제사 얘기를 예로 들어, 조선의 이미 망한 명나라를 섬기는 그 이유를 해명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조선이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나라’임을 이해하고, 유척기 등 사신 일행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였으며, 더이상 조선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대동기문〉

9. 정적(政敵)의 아들을 비호한 박문수 (朴文秀)

박문수(朴文秀)는 영조(英祖) 때의 문신으로 여러 차례 암행어사(暗行御史)로 나가 많은 일화(逸話)를 남긴 인물이다.

당시에 조정은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갈라져서 심한 당쟁을 겪고 있었다. 같은 신하들끼리도 당시 서로 다르면 얼굴조차 맞대지 않으려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때에 박문수의 반대파인 노론 영수(領袖) 조태채(趙泰采)의 아들인 조관빈(趙觀彬)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자, 소론에서는 일체히 들고 일어나 조관빈을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조관빈이 비록 죄는 지었으나 그 죄가 죽음을 내릴 만한 죄는 아닙니다.”

하고 조관빈을 비호하였다. 이에 영조는

“조관빈은 그대들의 원수가 아닌가? 그가 죽으면 그대들에게 좋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물었다. 박문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따진다면 원수지간이라 할 수 있으나, 같은 신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殿下)께서 꼭 조관빈을 죽이고자 하신다면, 조관빈에게 죽을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신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를 죽인다고 말씀하십시오.”

영조는 이 말에 크게 깨닫고, 조관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박문수와 조관빈은 뒤에 판서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두 집안의 자손들은 그 뒤에도 비록 표면적으로는 원수지간처럼 지냈으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나서서 도와주었다.

〈대동기문〉▲